

대만필·백건우 협연...화려한 울림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두번째 무대

대구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 발랄한 ‘로마의 사육제’로 개막 오늘 그랜드콘서트홀 무대

대만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대구에 온다.

6일 오후 7시30분 대구시민회관 그랜드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것.

대구시민회관 개관 기념공연인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두번째 초청 무대이다.

1986년에 설립된 대만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5년부터 장계식문화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2010년 8월부터 현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샤오 치아 루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지휘콩쿠르인 브장송(Besancon)을 비롯해 트렌토(Trento), 암스테르담(Amsterdam) 지휘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1995년 독일 베를린 코미쉬오퍼 극장, 1998년 독일 라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코블렌츠 극장,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하노버 오페라하우스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협연한다.

백건우는 10살 때 국립교향악단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데뷔 무대를 가지는 등 일찍이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냈다. 1961년 뉴욕으로 건너간 후 1972년 뉴욕 링컨센터에서 가진 라벨의 독주곡 전곡 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9년부터는 프랑크 니니르 에베랄드 코스트 음악제의 음악감독을 맡았고, 200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 기사훈장’을 수여받았다.



대만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6일 오후 7시30분 대구시민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작은 사진)가 협연자로 나선다.

공연은 생기발랄한 리듬과 관현악기들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베를리오스의 ‘로마의 사육제’로 문을 연다.

로마의 사육제는 베를리오스가 1838년에 쓴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의 제2막 서곡이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벤베누토 첼리니와 미너 테레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케스터네츠의 리듬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프 로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과 민족적이고 자유로운 색채감을 가진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을

연주한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1921년 완성된 협주곡으로 프 로코피에프가 작곡한 5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많이 연주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영국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교향곡 제8번은 민족적인 성격을 많이 사용해 형식도 자유스럽고 고전적인 질서보다는 변화나 대조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53-250-1400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